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선정

고창 두어마을, 생산·가공·관광등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심원면 두어마을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9일 전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수산물과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관광·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최종적으로 전국 5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두어마을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안에서도 핵심지역인 고창갯벌이 있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적인 갯벌생태계가 복원된 청정 지역이다.

또 세계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랍사르 습지로 등록된 탐사르 고창갯벌센터가 위치한 마을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주식 김, 갯벌천연염, 가무락, 뱀장어, 복분자, 오디 등 천자연



고창군은 심원면 두어마을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9일 전했다.

적 산물이 풍부하다. 이번 시범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자연'을 배우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 두어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 모두가 색다른 비전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두어마을은 앞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갯벌체험장 운영과 지역 특산물 로컬푸드 및 식당, 다양한 수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한 액티비티 가공공

장, 마을 경관개선 등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활발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그동안 두어마을은 모든 주민들이 전북도와 고창군과 유기적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국 최고의 6차산업화 시범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춘향제 성공 개최 우리들 힘으로'

자원봉사자 발대식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관계공무원과 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86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로 86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우리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로써 그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고장 남원을 홍보하는 데 최일선의 일꾼 역할을 맡아 왔다. 그 결과 춘향제가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전통 예술축제로 공인되어 지역대표 공연 예술제 전국 1위의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직접 대면하게 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추진계획 설명, 기본소양교육 등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86회 춘향제의 볼거리·즐거거리 소개와 함께 자원봉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성공적인 축제를 다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결의문 낭독 순으



지난 7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관계공무원과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6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로 진행되었다.

한편, 춘향제 자원봉사활동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3회에 걸친 남원 IC 주말 사전홍보를 시작으로, 축제기간인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안내·미아보호·교통·질서유지·문화봉사 등 17개 분야 연인원 1,168명이 관광객과 시민이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86회 춘향제를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 것이며, 친절, 정결, 미소를 기본 정신으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환주 시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와 행사기간 즐겁게 될 값진 땀이 제86회 춘향제의 성공 개최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축제' 성료

매일 5천 여명 방문

'제12회 운암면민의 날 기념 행사' 및 '제1회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축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1회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는 심민 군수, 이용호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기념식 이후 6만 여명의 광활한 대지에 펼쳐진 노오란 갯꽃길을 체험하고 지역 특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경남 양산에서 축제장을 찾은 서영임씨는 "제주도를 방불케 하는 노오란 꽃들의 물결이 정말 환상적이었다"며 "아이들을 위한 꽃차체험, 청소년가요·댄스경연대회, 토속적인 향토음식, 즉석 농·특산물판매 등 다

채로운 행사가 너무 즐거워 내년에도 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호철 옥정호꽃걸음축제위원장은 "축제기간 매일 5천 여명이 방문해 대성황을 이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을 주는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암면장은 "축제 첫째라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행사 기간 한 건의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권호철 위원장 및 주차장리 등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암면 옥정호 수변도로는 물안개 길을 비롯한 국사봉에서 바라본 봉어섬의 아름다운 자태로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 2회 '그리운 나의 아버지 추모 행사' 개최

국립임실호국원 어버이날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원에 안장되어 계신 고인들의 유가족을 초청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회상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본받고자 제 2회 그리운 나의 아버지 추모 행사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가족이 작성한 회상편지낭독 등 직

접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부대행사로 전북도립국악원의 해금연주와, 군산시향합창단의 공연등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행사를 마련한 신준태 국립임실호국원장은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그리운 아버지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호국원이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어버이날 맞아

고창 '보건소 건강 체험 터' 인기

고창군(군수 박우정) 보건소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 마련한 '새싹들의 건강생활 체험 터'가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9일 보건소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들의 건강생활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강 생활체험 터에 지난해 보다 올해에 200여명이 많은 63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는 등 학부모와 어린이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 생활 체험 터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총 37회에 걸쳐 다음 달 24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구강 체험 터, 건강 체험 터, 아토피 체험 터, 손 씻기 체험 터, 영양 체험 터 등 5개의 영역으로 영양 교육과 만들기 체험, 휴먼 및 음주예방 그리고 구강 위생교육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으며 특히 교육에 따른 어린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최대한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영상을 통한 시청각 교육, 실물 모형의 다양한 전시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토피 체험 터에서는 여름철 모기물림 예방을 위한 버들잎을 직접 만들고, 구강 체험 터에서는 아동기 적합한 잇솔질 방법과 건강한 치아관리 등 올바른 구강 위생관리법과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여름철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건강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6단계 손 씻기 체험 교육으로 뷰박스를 이용하여 개인별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을 지도하며, 영양 체험 터에서는 식품모형을 이용하여 성장기 아동들에게 좋은 음식과 해가 되는 음식을 직접 찾아보고 식빵과 야채, 채소를 이용한 까나페 만들기를 통하여 내가 만든 음식 먹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체험을 마친 후에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여 유아시설과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소원강 보건소장은 "건강생활 체험 터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여 튼튼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며 "취학 전 유아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 야간합동순찰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는 최근 도동자율방범대와 함께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체감치안 확보를 위한 야간 합동 근무를 실시하였다.

이날 도동지구대 직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은 도동동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원룸촌을 비롯하여 공원, 놀이터 등 야간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구석구석 세밀한 순찰을 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도동동 자율방범대는 평소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시간에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수송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우범지역 자율순찰을 통하여 청소년도 등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도동지구대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력하며 주 1회 이상 합동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치안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어르신 에너지 향상 활동 공모 선정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공모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에너지 향상 활동'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귀반사 전문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엔젤스킨 공방에서 김금화 강사와 이정문 강사가 컵 만들기 활동을 재능기부로 참여해 오는 10월까지 추진된다.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와 3년째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활동은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얻고 어르신들은 질적으로 향상된 봉사를 받을 수 있어 호응이 좋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